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보 도 자 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 시점	<전매체> 11.20.(금) 08:00	배포	2025.11.20.(금)

담당 부서	AX전략실	책임자	실 장	송치평 (044-300-0921)
		담당자	선 임	박휘서 (044-300-0924)
배포 부서	소통홍보팀	책임자	팀 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주 임	김샛별 (044-300-0721)

실물 인공지능 공급기업 한자리에…내년 실증사업 협력 모색

기정원, 인지·판단·실행·통합 4단계 기술별 공급기업 매칭 행사 개최

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김영신, 이하 기정원)은 센서·인공지능 모델·로봇·시스템 구축 등 실물 인공지능 분야 공급기업 11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「중소제조 실물 인공지능 공급기업 교류의 날」을 개최하고, 2027년 실증사업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.

○ 실물 인공지능 로봇 등 물리적 장치가 현장 상황을 스스로 인지·판단해 작업까지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로, 인력난과 위험공정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제조 현장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.

□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가 지난 10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중소제조 실물 인공지능 확산 전략」의 후속 조치다.

○ 실물 인공지능을 공장에 적용하려면 현장을 읽는 센서,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,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 등 개별 기술뿐 아니라 이를 생산설비와 연결하는 통합 과정이 필수적이다.

○ 그러나 국내 공급기업은 규모가 작고 기술 역량이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어, 통합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확산 전략이 마련됐다.

□ 이에 기정원은 참가기업을 기술 단계별로 나눠 배치하고, 서로 다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한 팀을 꾸릴 수 있도록 매칭에 초점을 맞췄다.

○ 단계별로는 ▲인지(센싱·데이터) 20개사 ▲판단(인공지능 모델·소프트웨어) 39개사 ▲실행(로봇·하드웨어) 17개사 ▲통합(현장 적용) 36개사가 참여했다.

○ 행사에 참가한 로봇 기업 트위니의 김태형 본부장은 “개별 기업이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교류의 자리가 마련돼 여러 기업과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”며, “좋은 협력기업을 발굴해 연합을 꾸리고, 과제를 통해 기술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잘 살리겠다”고 말했다.

□ 행사에서는 기정원이 2027년 중소제조기업 실물 인공지능 실증 지원사업을,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이 실물 인공지능 연합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을 각각 소개했다.

○ 중기부는 확산 전략에 따라 장비·공정·공장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으로 수작업·위험공정 등 중소제조 현장에 실물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한편 행사 참가기업의 81.3%는 50인 미만 기업이었고, 비수도권 기업도 47.3%에 달했다.

□ 김영신 원장은 “실물 인공지능은 한 기업의 기술만으로는 제조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”며,

○ “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중소제조 현장의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